도내 50개 초중고 소규모 실내체육관 건립

도교육청, 20억원 투자 연말까지 체육관 미보유 학교 1교당 4천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총 20억원을 투자해 연말까지 50개 초중고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한다.

도내 775개 초중고특수학교 중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학교는 238개 학교로 30.7% 수준. 도교육청이 최근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실외 체육활동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육관 미보유 학교에 대한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정규 체육관 신축비용은 1교당 15억원으로, 238개 학교에 추진할 경우 총 3,57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유휴공간을 활용, 교실 2~3개 크기의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해 긴급 처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육관을 보유하지 않은 50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1교당 4천만원을 지원해 바닥에 매트나 마루를 설치하고 벽면 보호매트, 층간소음 완충재 등을 설치하는 한편 탈의실 겸용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실내체육시설을 교실 2칸 공간(132㎡) 40평 이상 크기로 추진하도록 하고 총 20억원을 투자해 올 연말까지 50개 초중고에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실내체육관은 실내경기종목의 경기가 가능한 체육시설로 바닥규격 길이 22m, 높이 7m 이상을 말한다. 이에 반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은 정규 체육관 규격에 미달하나 교실 면적의 2~3배 크기 이상으로, 유도장, 검도장, 놀이교육 등 체육활동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정해은 기자

2017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 · 취임식이 26일 오전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환 교육감, 전 교육위원겸 군장대석좌교수 나국현, 장명식도의원, 이해숙도의원,최인정 도의원,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행사를 치렀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이 · 취임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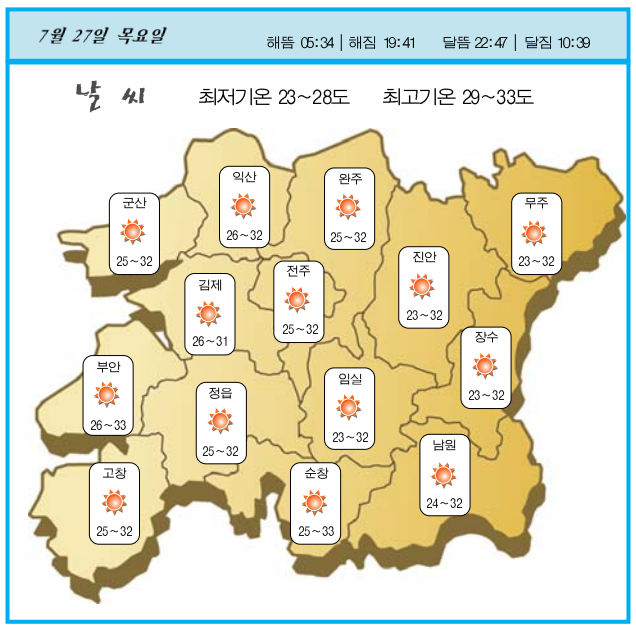
2017년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상문) 이 · 취임식이 26일 오전 도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14개 시 · 군 중 전주, 군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등 8개 지역의 새로운 회장들이 취임했다.

이날 이 · 취임식 후에는 2016년에 임기 만료된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8명 및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국 직원 4명 등 총 12명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내 14개 시 · 군 협의회장들이 모여 지역간 정보 공유 및 협조체제 구축,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와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해은기자 · 익산=장양원 기자



29일 충경로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운영

무더위 식힐 수 있는 물놀이 프로그램 추가

차량들로 가득했던 도로 위에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3번째 차 없는 사람의 거리가 운영된다.

특히 이번에는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 프로그램이 추가되면서 사람 중심의 이색거리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오는 29일 객사 앞 충경로사거리에서 다가교사거리까지 충경로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사람과 생태, 문화·예술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충경로 주변 상권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둘째 주가 아닌 마지막 주 토요일로 옮겨 운영키로 했으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던 행사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로 변경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샤워터널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고 물병으로 만든 물총놀이 등 물놀이 마당이 펼쳐진다.

또 얼음 위에서 오래 견디기와 수박 먹기, 커플 음료수 마시기, 아이스버킷, 등목, 얼음물에 발 담그기, 물풍선 터트리기 등 무더위 탈출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는 아스팔트 바닥에 낙서하기, 딱지치기 등 전래놀이 등 놀이마당이 펼쳐지고, 핸드메이드 · 중고장터 등 시민장터와 공예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버스킹, 거리예술무대, 청소년 공연, 한여름밤 콘서트 등 공연마당이 준비되며, 거리쉼터, 고무신던지기를 비롯한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주시는 사람의 거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의 인력을 배치해 우회도로 안내 등 운전자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내버스 우회도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구거리와 전주천 동로, 시청주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송준상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이번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변상인들과 상생하고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여름철 무더위도 날려버리고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재용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대 대학원생 3명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 선정

매년 2천만 원 학술활동비 등 지원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원진(고분자나노공학과 · 지도교수 정광운), 강주연(기록관리학대학원 · 지도교수 김 용), 이지연(기계설계공학부 · 지도교수 박찬희)씨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세계 수준의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됐다.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은 국내 박사 및 석 · 박사 통합과정 및 입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높여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이번 선정은 윤원진 · 강주연 · 이지연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연구자라는 정부 인증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에 선정된 이들은 2년 동안 매년 2천만 원의 학술활동비와 별도의 등록금을 받고, 2년 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도 받는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창업교육센터 · LINC+사업단

청소년 창의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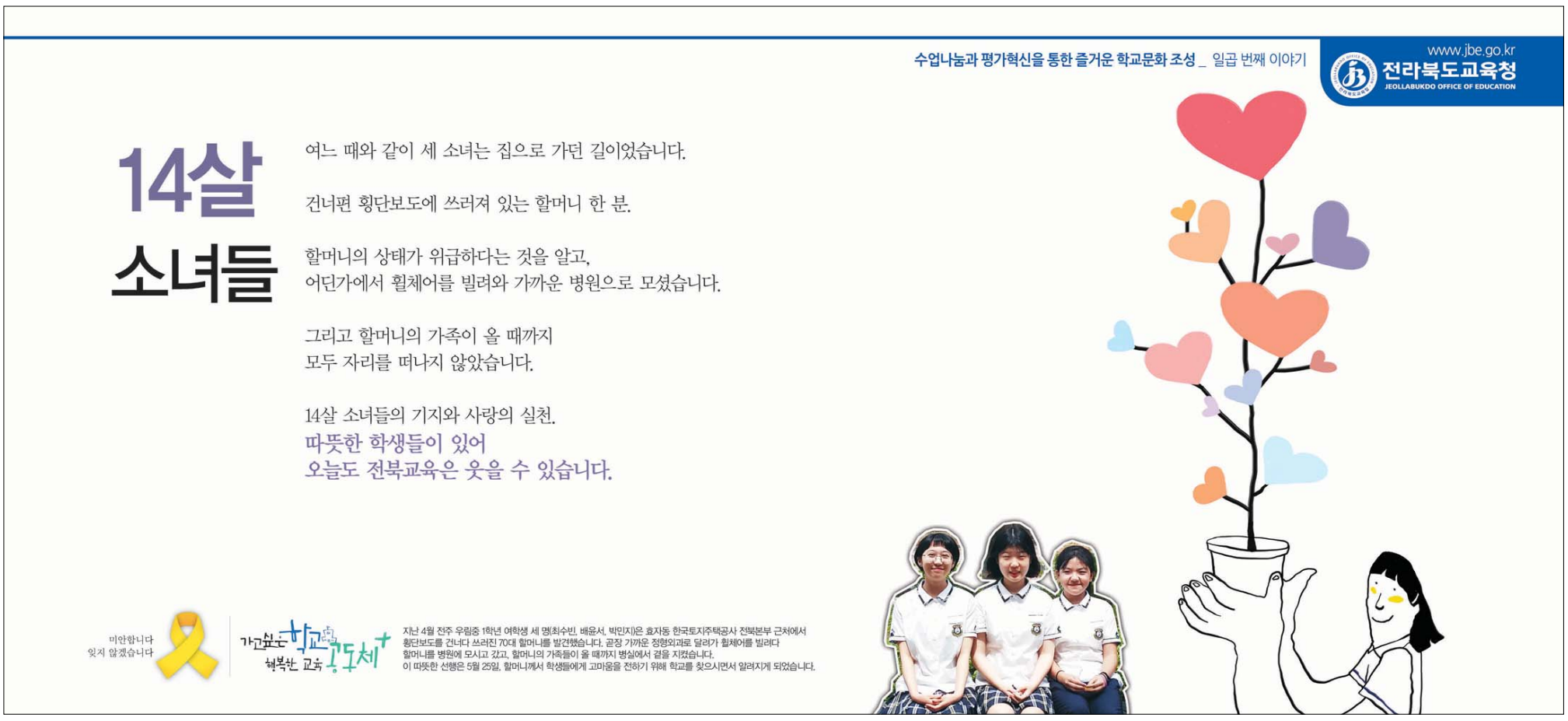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창업교육센터와 LINC+사업단이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017 청소년 상상나래 IF(Idea Factory) 메이커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3D프린터와 아두이노 기반 사물인터넷(IoT) 교육 실습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교육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요약서 작성과 1분 엘리베이터 피치 경연대회 등도 열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

올 1월 도내 6개교(익산 원광중, 군산 제일고, 전주 근영여고, 군산고, 전주 솔내고, 전주 양현고) 12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바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1일과 24일 전주고와 완산고에서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청소년들이 본격적인 방학을 보내는 8월에는 특별하게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초대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주고 한 학생은 "3D프린터와 사물인터넷 실습을 통해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TV에서만 보고 듣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만영 전북대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장은 "특색 있는 전북대만의 창업교육 프로그램 체계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대학을 벗어나 지역까지 확대하여 올바른 기업가정신과 창업 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